추락하는 주인의식에 날개 달 때

독자투고

'경희가족에 바란다'—(1)학생과 학교

우리 대학에서 15년이 동안 근무하고 있는 김노환 석유캠퍼스 연구처 과장의 우리대학이 가야할 길에 대한 투고를 2회에 나누어 싣고자 한다.

1회는 '학생 및 학교에 바란다' 2회는 '교수는 어떠한가'라는 소주제를 나루기로 한다.

〈편집자 註〉

□학생에 바라며

입학식을 마친 학생들을 살펴보자. 물론 지긋지긋하게 대입위주로 정철되어 온 신입생들은 합격이라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일게다. 입학식을 마치기도 전에 단과 대학별 오리엔테이션,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며칠씩 합숙을 하며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대학생활을 어떻게 알차고 견전하게 영위하는가. 닫혀 있는 마음을 어떻게 열어 젖히는가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입시압박에서 벗어나 한바탕 놀아보겠다는 마음이 강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부학생들의 경우 열려진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는가보자는 어떻게 하면 미팅의 건수를 올리는가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것같고, 열린사회로의 도전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더욱 매달려 있는 듯 싶다. 도서관에 고등학생을 데리고 들어와 달리는 교직원에게 하숙집 아들이라고 버럭 화를 내는 학생들도 있다. 또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해 놓은 유휴좌석도 많다. 과연 이런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강의실에 휴지와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동아리 방에는 술병이 나뒹굴며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는 연구실에 들어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술에 취해 유리창을 깨는 이런 학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강의시간에 졸대로 참석하지 않고 학점이 나쁘게 나온다고 교수는 능력이 없다고 매도한 사실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고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는 교수는 능력없는 교수로 돌리고 학생들에게 술이나 사주고 학점이나 후하게 주는 교수는 훌륭한 교수로 만들어지는 요즈음의 실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정형위 한 학생을 정학 처분 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학생들의 보습을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연히 학생회관이 존재하는데도 동아리 탈출반, 범대 탈출반, 정경대 탈출반, 의대 탈출반 등 각 단과대학별로 동아리 방을 달라고 한다. 방금 천한 벽에 각종 공고문이 나붙고 쓰레기는 아무리 처워도 끝이 없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며칠 남지 않은 봄 축제는 이제 또 얼마나 흔한스러울까? 신입생 환영행사는 5월 축제까지 연결되어 어느 교수는 1학기에 수업하는 시간수가 16주 중 7~8주만 강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입생환영회를 마치고 온 신입생에게 과별 체육대회다, 학년별 체육대회다하여 2~3주가 지나가 버린다. 이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독립제가 열린다.

독립제의 행사를 보자. 물론 93년도에는 그래도 조용히 지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2, 3년 전만 해도 교시탈 앞의 거리는 딱걸리 병이 난무하고 저녁나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싸움의 소리가 끊일난이 없고 그런 날이면 전 교직원은 비상대기를 해야하는는 그런 관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 다음은 수학여행이다. 졸업여행이다하여 보통 [illegible] 교수로 [illegible] 부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수를 평가하기 이전에 학생이 교수를 연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3~4건의 질문만 하면 연구하지 않을 교수님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진정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공부방이 깨끗하듯이 강의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집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듯이 캠퍼스 곳곳에 널부러져 있는 쓰레기는 지나다니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에 바라며

명예를 위해 학교의 질은 떨어져도 좋은가? 94학년도 신입생의 합격점이 낮아진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마련해 주었는가? 우리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는가를 돌아보고자 한다.

우루파이 라운드로 대학의 전문적인 학목까지도 개방해야 될 전초전인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 어른의 구실, 선배의 구실, 직원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 학생들이 분의사항을 물어올 때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니시에 오세요"하고 만무을 닫아 버린다. 매일 대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나도 피곤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 몇가지가 있다. 우선 부사안일주의의 소산인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나'하는 생각이다. 해야 할 일을 두고 퇴근시간만 되면 하던 일 덮어버리고 퇴근해 버릴때는 언제나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던 생각이다. 다음은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않고 대충대충하여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팽개쳐 버리는 행위이다. 숙직을 하면서 그날의 발생하는 모든일에 총장의 역할을 해야하는 나 자신이 관리인에게 전 학교를 맡기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적은 없었는지 뒤돌아 볼 때가 있다. 한편, 어떤 직원이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비림직한 방향으로 행정이 변화하려 한 때 이를 시기하여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본다. 그 의견을 더욱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돌기보다는 시샘을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 본다. 총무과에서 서류가 오면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다른부서의 일이라고 돌려 자신의 일을 남의 일로 돌리는것이 현실의 나인가 한다. 짧인을 회피하고 질한 일은 자신의 공적으로 드러내려는 나를 가끔 발견한다.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나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본다. 내가 하려고 하던 기획이나 계획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때 "내가 언제 했던 일인데, 내가 언제 발의한 일인데"하며 나의 공을 내세우기는 잘하면서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은 타부서의 업무로 밀어버리는 자신을 가끔씩 발견한다. 물론 학교에서 출세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먼저 진급하고 보직을 받으려면 줄을 잘서야 한다며 간까지 빼 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어느 사무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나도 거기에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게 된다. 줄을 잘 서야 기회가 부여된다는 나의 사고방식 때문일까? 어떤일을 하여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옳은 일이 정상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면서 "직원이 하는일 다 그렇지 뭐?"하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학교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학생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미루다가 학생들의 물리적 요구가 있을때에야 응해주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기전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를 발표하여 먼저 확정짓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관에 냉난방이 소홀한가를 먼저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어야 하고, 컴퓨터가 고장 나기 전에 점검을 통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도 먼저 등록을 하고 환불하여주는 수동적 자세보다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잔여분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증명서 발급 및 학생, 교수를 위한 기타 업무에 있어서도 점심을 교대로 먹더라도 기다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학교에서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겠다는 의견보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교육원을 빨리 열어 우리 학교 학생이 외부에 나가 학원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야 할 것이고, 있는 제원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김 노 환

〈연구처 연구과장〉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한마음·한몸 되어야 할 때

강단시론

김 성 수

〈사회대 교수·경영학〉

"스승은 달라져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스승의 사명은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94년도 3월 새학기를 맞으면서 유난히도 신문이나 방송에 국제화·세계화·개방화란 용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 UR협상은 장장 7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끝이 났다.

나는 이러한 용어의 홍수속에 오늘의 참다운 스승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선생은 많고 스승은 적다

선생은 많지만 남의 스승이 될만한 선생은 드물다고 한다. 이 말은 '경사(經師)는 만나기 쉽지만 인사(人師)는 만나기 힘들다'는 옛말과 같다. 경사(經師)는 경서(經書)의 강의를 하는 선생이며 인사(人師)는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전자는 교과서나 강의하고 지식이나 전달하는 직업적인 선생을 의미하고 후자는 진정한 교육자란 뜻일 것이다. 이러한 말의 비유는 중국의 서유(巨儒) 사마광(司馬光)이 일찍이 갈파한 바 있어 유명하다. 그러나 왜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드물까, 스승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며, 스승의 정신은 그리고 스승이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가에…….

국제화·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는 각종 대학발전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스승의 길은 어떠해야 되는지, 나는 조용히 그리고 수없이 반문해 본다. 그러나 얻어진 결론은 소박한 스승의 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첫째, 스승은 제자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어느 시대이건 교육은 사랑없이는 불가능하다. 스승은 젊은 학생들의 정신적 발전과 인간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다운 스승이란 제자의 학문적 발전과 인간적 성장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생활의 고민, 성공할 때 축하해주는 그러면서 염려하고 따끔한 충고와 지도,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 스승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스승을 위대하게 만드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서슴없이 사명의 자각이라고 대답을 하겠다. 특히 교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또한 사명감처럼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의 소질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지혜,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법, 제자가 자기보다 훌륭해지도록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수는 사명적 존재이며,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서 보람을 느껴야 한다.

셋째, 스승은 학구적 정신의 소유자라야 한다. 국내외 환경에 변화하는 학문의 대응에 노력하면서 진리하는 학구적 연구의 정신이 필요하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젊임없이 향상하려는 정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단히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정신이 강해야 제자에게 꾸짖을 때에는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고, 질책할 때는 서슴없이 질책하고 엄하게 다스릴 수 있다.

넷째, 스승은 제자에 대해서 반드시 권위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은 권위의 터전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실력과 인내 그리고 관용이 필요하다.

나는 지난 1993년 11월 1일자(제32호) 교수신문, '박에서 본 대학'난의 "강의는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이글을 쓰게 되었다. 여기에 그 글을 쓰신 분의 아들이 하는 말을 일부 옮겨본다. 대학 3학년의 아들 왈 "강의는 있읍니다만 강의들는 시간이 아까워 학교는 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니다"라고 부친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의 문장을 더 인용하면 "교수님들의 강의가 작년, 재작년이나 그 내용이 똑 같으며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현시대에 맞는 내용이 없어 차라리 도서관이나 가서 책을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부친은 그의 아들의 말에 너무 실한 쇼크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수들은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지적 표상이며 그 사회의 좌표를 제시하고 선도하는 나라의 스승이다. 모든 제자들이 우러러 보시고, 일반 국민들이 이정표를 주심사고 간청하는 지성의 대명사가 바로 교수라고 하는데……" 오늘의 교수는 이런 스승이 없다고 꾸짖고 있다.

"연구하라는 교수실은 텅텅비어 있고 연구실 강서들은 주인손을 기다리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거나 강의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일찍나오고 강의 내용도 10년전이나 똑같아 학생들이 들을 것이 없다고 핀잔하거나, 세시대의 조류에 전혀 무감각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없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학병을 자골아라도 교수가 앞장서서 고쳐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나는 이 교수신문에 실린 학부모의 추상같은 질타에 스승의 사명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푸른빛은 쪽풀에서 나왔다"

국제화시대를 맞으면서 교수도 새삼게 달라져야 한다…학부형들까지도 교수를 감시(?)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스승은 지식이나 학문에 있어서 실력과 권위를 가져야 함은 물론 그것을 제자에게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학벌과 경륜도 중요하지만 스승으로서 양심과 공신력이 있어야 하며 인간적 겸손과 도덕적 예의 범절도 출중해야 한다. "교수는 많다. 그러나 스승은 귀하다. 더욱 상아탑의 진리는 귀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되새기면서 이글을 맺는다.